

현대 한국어의 장단음에 관한 연구

박 주 경*

1. 서 론

우리말에서 장단(duration)이 음운목록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 기능이 점차로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 있어서는 극히 희박해져 가고 있음은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장단음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으나, 뚜렷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장단음에 대한 의식 및 인식의 정도와, 실제로 장단음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세대별로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변화 추세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단음 음운으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우리말의 음운체제상에서 어떤 음운이 장단과 대치될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현재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문교부 표준말안, 1979.2)로 정의되는 표준말을 정했으나, 해방 후 지방 인구의 대폭적인 전입에 따른 지역 방언의 진출과 서울말이 지방 방언에 동화되고 표준말의 권위가 약화되었으며 또한 표준말 교육의 부진으로 순수한 서울말 사용자가 드물게 되어, 「본인은 물론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3대 이상 서울에서 출생·교육을 받고,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여 각 연령층당 5명씩 6개 연령층 30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크게 자라나는 세대(30대 이하)와 안정된 세대(40대 이상)로 구분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자료는 사용 빈도수가 높은 낱말 400개를 선정하여 인용형(citation form)으로서와 문맥 속에서의 차이를 관찰하고 또한 보다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로써 문장 277개를 만들었다. 조사

* 이 글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방법으로는 장단 의식 조사를 위한 질문지법과 실제 발음을 듣기 위한 녹음·면담법을 병용하고, 장단의 개념에 대한 의식 정도와 교육과의 상관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별도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녹음된 자료의 장단음 구별은 동일한 환경에서의 상대적인 길이를 보되 그 단계를 장음과 단음 둘로 하였고 대략 1.5~2:1의 길이 비율을 사용하였다. 먼저 청각 판단에 의해 분석하고 객관적 검증 방법으로 스펙트로그래프 (Sound Spectrograph, MD . Digital Sona-Graph 7800, KAY)를 이용하였다.

분석 및 기술에 사용한 자료의 표기는 한글 정서법으로 하고, 장음 부호로는, 장모음의 경우 해당 음절 상단에 (예, $\bar{\text{고}}$ 구마), 장자음의 경우에는 해당 음절 하단에 (예, $\underline{\text{강}}$ 권) ·-를 그어 표시하였다.

2. 조 사 결 과

2.1 의식상의 장단음

이것은 피조사자로 하여금 질문지에 장단음 표시를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단음에 대한 의식의 발현으로 간주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2.1.1 기준형과 의식된 장단음간의 일치도

각 낱말에 얹혀진 장단의 표본으로 최근 문교부에서 제시한 표준말안을 사용하여, 여기에서 상정한 장단이 언중의 의식속에 있는 장단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기준형이 갖는 객관성 및 현실성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는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의식과 기준형과의 일치도표

연령층	10-19	20-29	30-39	40-49	50-59	60-
일치도 (%)	40.45	42.65	41.3	40.05	44.7	46.05
의식과 기준형과의 일치도 총평균 : 42.53 %						

위 표가 나타내 주는 것은 기준형의 객관성 및 절대성과 교육에의 적용을 위한 현실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 언어 사용자의 의식에 나타난 장단과 기준형으로 설정된 장단의 일치도가 낮은 이유는 주로 복합어 및 파생어의 경우에 기인한다. 즉 기준형에서는 우리말의 장음이 거의 대부분 첫음절에 나타난다는 원칙을 적용하되, 낱말들의 말토막을 둘로 하여 각 말토막의 첫음절에 장음을 매겨놓은 데 반하여 (예. 맨-나중, 팔-래꾸, 가-계약, 봉산-탈춤, 근로-봉사 등), 일반 언중의 의식 속에서는 말토막이 거의 한 개로 되어 있고, 둘로 인식한다 해도 두번째 말토막의 첫음절이 갖는 길이는 길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2.1.2 의식된 장단음과 실제 발음간의 일치도

표 2 의식과 실제 발음간의 일치도표

연령층	10-19	20-29	30-39	40-49	50-59	60-
일치도 (%)	57.4 (29.12)	64.05 (50.39)	69.55 (69.64)	65.35 (74.63)	70.85 (93.29)	66.15 (94.92)

(괄호 안은 장음에 대한 일치도)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일치도는 대체로 비슷한데 장음만을 대상으로 할 때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일치도가 매우 낮는데, 이는 이들 세대에 있어서 평소에 우리말 장단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다분히 즉흥적인 판단으로 질문지에 표를 하고 실제 발음은 그와 다르게 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액센트, 열린 연접 및 고저 등또는 이들로 인해 생긴 음성학적 길이를 장단 음운으로 잘못 생각한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30대 이상에서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은 그만큼 장단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또 그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1.3 의식과 교육의 상관성

먼저 이를 위한 설문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 1) 우리말 장단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 2) 장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3) 대화 중 장단음을 의식하고 말합니까?
- 4) 장단이 틀림으로 해서 의미 전달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습니까?
- 5) 장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의식과 교육의 상관성 도표

응답 (예/아니오)	연령층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60-	
①	1/4	3/2	4/1	5/0	2/3	5/0	20/10
②	3/2	4/1	2/3	4/1	2/3	2/3	17/13
③	1/4	1/4	0/5	3/2	1/4	2/3	8/22
④	1/4	2/3	1/4	4/1	2/3	4/1	14/16
⑤	4/1	4/1	4/1	5/0	5/0	5/0	27/ 3

위에서 볼 때 적어도 안정된 세대에서는 장단이 분명히 음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세대간의 언어 전수에 있어서 점차로 의식 및 실제 사용상 약화되어 현재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장단이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의 경우 장단음으로 인한 의미혼란의 사례가 극히 드물고, 의식되지 않는 언어현실을 굳이 돌이켜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 볼 때, 앞으로의 우리말에 있어서의 장단의 위치 결정은 시간을 두고 점차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2.2 실제 발음상의 장단음

이는 조사 대상자들의 발음을 녹음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먼저 긴 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장음 사용도표

연 령	10-19	20-29	30-39	40-49	50-59	60 -
장음사용도 (%)	16.75	30.75	49.75	62.5	62.75	62
$\frac{\text{장음사용날말수}}{\text{전체 날말수}}$						

위에서 올바르게 긴소리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긴소리 자체의 사용빈도가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준형과 실제 발음간의 일치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표 1과 유사하며 그 원인도 같다고 해석된다.

2.3 모음의 장단

음의 장단은 주로 음절의 중추적인 모음에 관계되는데 모음 길이에 의해 대립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연령별 변화 추세를 살피기에 용이한 대상으로 동형이의어와 이중모음 두 경우를 살펴 보았다.

먼저 분석 자료로 쓰인 동형이의어는 총 44쌍(예, $\bar{\text{명}}$ (옷감) : 명(복숭)
 $\bar{\text{없}}$ 다 : 없다, $\bar{\text{눈}}$ (雪) : 눈(眼), $\bar{\text{일}}$ (事) : 일(一) 등)인데, 안정된 세대에서는 총 20쌍의 날말을 모음의 장단으로 의미를 구별했으며 그 중 13쌍이 기준형과 일치한 데 반하여,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기준형과 일치하면서 모음 길이를 구분한 것은 유일하게 「 $\bar{\text{밤}}$ (粟) : 밤(夜)」 한 쌍뿐이었다. 이는 자라나는 세대에 있어서 장단 의식이 어느 정도로 상실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여기서 양 세대간의 실제 발음상의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다 음의 스펙트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에서 「 $\bar{\text{말}}$ (語)」과 「 $\bar{\text{말}}$ (馬)」의 모음 길이(정확히 말하면 초성 자음과 모음의 이음부+모음의 길이임)는 각각 0.2(초)와 0.11(초)이다. 여기서 앞의 모음 길이는 뒤 모음 길이의 약 2배가 되므로 분명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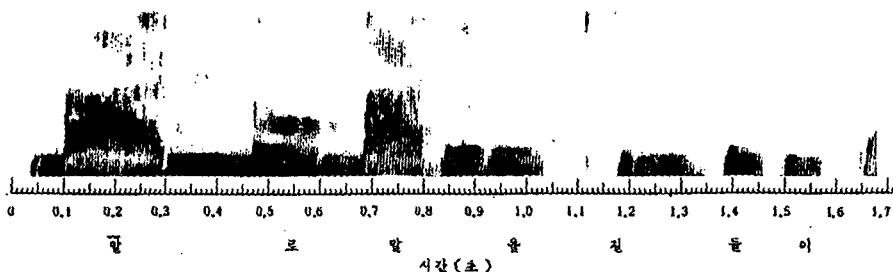


그림 1. 안정된 세대의 「말(語)」과 「말(馬)」의 spect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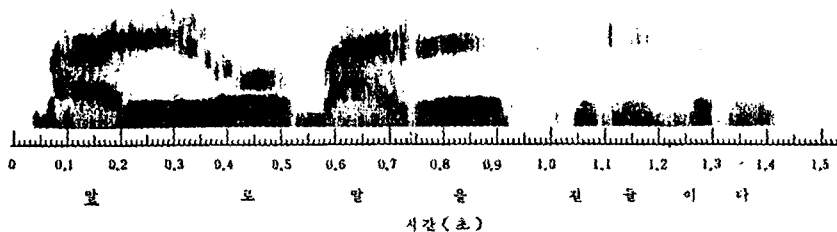


그림 2. 자라나는 세대의 「말(語)」과 「말(馬)」의 spectrogram

장음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두 낱말은 「말:말」로 대립관계를 이룬다. 반면에 그림 2의 자라나는 세대의 발음에 있어서 두 낱말의 모음길이는 각각 0.14(초)와 0.15(초)로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 특이한 점은 앞의 「말」에서 중성 자음 부분(시간축상의 0.20(초)~0.38(초) 구간)이 길고 겹게 나타난 것으로 이것은 중성 자음이 그 앞에 오는 단모음에 수반된 액센트의 영향으로 힘주어 길게 발음된 것임을 나타낸다. 자라나는 세대에 있어서 모음 길이에 의한 의미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안정된 세대에서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낱말에 있어서 그 중성 자음을 길게 하면서 동시에 그 앞모음은 짧고 액센트를 주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ㄱ/모음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벌(蜂) : 벌(野)」 「평(옷감) : 명(복숭)」 「없다 : 없다」 「적다(少) : 적다(쓰다)」 「별(星) : 별(別)」 등에 대해 자라나는 세대들은 장단에 의한 의미 구별을 하지 않을 뿐더러 음가의 차이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위의 낱말들을 모두 액센트로 수반한 짧은 /ㄱ/ ['Λ]로 발음했으며, 특히 장단에 의한 /ㄱ/모음의 음가 변동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안정된 세대의 경우에는 장단으로 분명히 의미를 구별하여 장음으로 나는 「벌, 평, 없-, 적-, 별」은 대체로 [ə -] 또는 [γ +]로, 그 상대쪽들은 모두 [Λ]로 뉘으로써 청각상 뚜렷이 구분이 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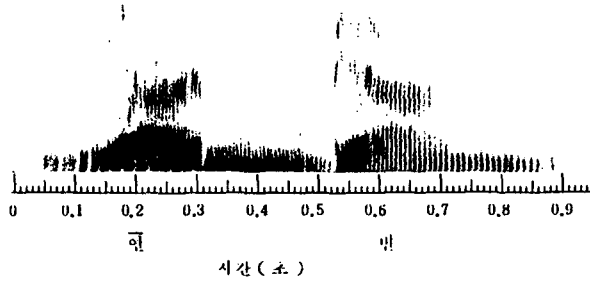
한편 동형어의 경우, 같은 이중모음이더라도 변별자질로서의 장단이 없힘으로써 길이의 차이가 있었으며, 환경의 차이에 따른 길이의 차이는, 주로 열린 음절(open syllable)의 이중모음이 길게 발음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에서의 이러한 이중모음의 길이는 순전히 음성학적인 길이로 보아지며, 안정된 세대에서는 끝소리가 비음인 경우 그 앞의 이중모음이 길게 발음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양보, 양도, 연변, 환만, 평연습, 동성연애」 등이 그 예이다.

2.4 자음의 장단

우리말에서 장자음을 갖는 음절에 나타나는 현상을 초성자음과 종성자음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았는데, 주로 의미 강조를 위해 쓰이는 장자음이 초성 자리에 놓이면 이는 홀로 기능하기보다 인접한 모음과 함께 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음의 장단을 「초성자음+모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 그림을 살펴 보자.

a) 안정된 세대의 「연변」



b) 자라나는 세대의 「연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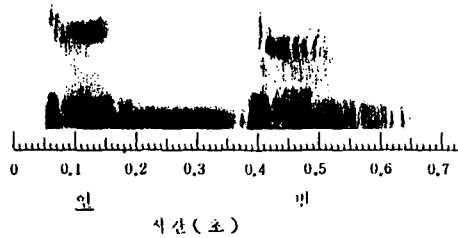


그림 3. 「연변」의 Spectrogram

그림 3a)와 3b)의 낱말은 각각 「연변」과 「연변」으로 표시된다. 즉 안정된 세대에서의 모음 장단에 의한 의미 분화 기능이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같은 기능은 없이 중성자음의 장음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3. 결 과 해 석

3.1 세대별 장단음의 특성과 기능

3.1.1 안정된 세대

우선 발화 속도가 대체로 완만함으로써 장음의 청각 인상이 뚜렷하여 단음 대 장음 비율이 거의 1:2로 나타난다. 둘째, 장음은 주로 모음에서 일어나며, /ㄱ/모음의 경우 장단과 강세의 영향으로 음의 변동을 일으키는데 대체로 [ɔ]와 [ʌ] 둘로 구별된다. 셋째, 장단을 의식하고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별, 세대별로 일관성이 있다. 넷째, 거의 모든 낱말의 장음은 첫음절에서 나뉘고, 말토막이 들로 될 때는 각각의 말토막 내의 첫음절에 장음이 없혀진다.

따라서 이 세대에 있어서 장단은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아울러 강세, 리듬, 억양, 열린 연결 등과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사용되면서 낱말의 뜻을 강조하거나 느낌을 살리는 표현적 자질이 되기도 한다.

3.1.2 자라나는 세대

안정된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장음의 청각 인상이 뚜렷하지 못하여 1.5~1.7:1의 장단음 비율을 보인다. 둘째, 단음절에 있어서 긴 소리는 모음보다 끝자음에서 많이 일어남으로써, 장단에 의한 모음의 의미 분화 기능이 없어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ㄱ/모음의 경우 음가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개인별, 세대별로 장음 의식 및 사용상에 일관성 및 정확성이 희박하다. 넷째, 대개의 낱말을 하나의 말토막으로 하여 음운으로서의 장모음을 발음하기보다는 음절말의 자음을 길게 소리낸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에 있어서의 장단은 음운으로서의 기능이 약화 내지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 표현적 자질로 쓰이는 경우에도 장모음보다는 끝자음을 길게 한 경우가 압도적이며, 강세와의 결합 유형상의 변동 즉 강세를 받아 앞모음이 짧게 나면서 끝자음이 길게 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장자음 사용도 된소리 되기 현상에 의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엿보이며, 모음 장단에 대한 의식의 약화로 전체 리듬 패턴상 변동이 일어나 낱말의 끝음절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4. 결 론

안정된 세대와 자라나는 세대의 일부가 장단을 음운으로 의식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단을 음운으로 설정하는 타당성을 찾을 수는 있으나 점차로 그 기능이 희박해져 가는 것이 확인된 이상 끝내 음운 목록에 남겨둘지의 여부는 재고되어야 한다.

한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장단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음운 및 음성 현상으로서 자라나는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종성자음의 장음화를 살펴 보았으나 이러한 길이는 의미 분화 기능이 없고, 다른 언어에 있어서도 자음의 길이가 음운의 기능을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모음에 없혀 기능하던 장단이 자음으로 이동해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그 외 어떤 특별한 대체 음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언어 현실상의 변동 요인 및 변화 추세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꾸준한 관찰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 민자 (1982) “현대 한국어 /ㄱ/모음과 영어 중앙모음 /ə/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 성기 (1972) “우리말의 장음 실태고”, 국민대 출판부 논문집
- 문교부 (1979) 「표준말안」, 문교부
- 이 현복 (1971) “현대 서울말의 모음 음가”, 「어학 연구」제 7권 제 1호, 서울대 어학 연구소
- _____ (1974) “국어의 말토타막과 자음의 음가”, 「한글」제 154호, 한글학회
- _____ (1981) “한국 청소년의 언어 생활”, 「청년 연구」제 3집
- 장 태진 (1959) “모음 장단의 대립에 관하여”, 청구대 국어국문학회, 「국어 국문학 연구」, 국판 3집
- 학술원 (1984) 「표준발음 조사지 I, II (조사용 및 분석용)」

- 허웅(1983) 「국어학」, 샘 문화사, 서울
- House, A. (1961) "On Vowel Duration in English",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33
- Jones, D. (1955)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Heffer, Cambridge.
- Lehiste, I. (1970) *Suprasegmental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 Peterson, G. E. & Lehiste, I. (1960) "Duration of Syllable Nuclei in English", *The Journal of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32

◁서울대학교 대학원▷